



ADOPTEE RIGHTS CAMPAIGN

가족은 유전자 그 이상입니다 - 엽서 캠페인 개요

개요: 엽서 캠페인은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약 3 만 5 천여명의 입양인들에게 그들의 출생(국)지와 상관없이 시민권을 자동 수여하도록 상하원에 상정된 입양인 시민권 법안 (Adoptee Citizenship Act) 을 지지하고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주 최: 이번 캠페인은 입양인 권리 캠페인(Adoptee Rights Campaign)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입양인 권리 캠페인은 미 전역의 입양인들의 모임과 입양인 권리 옹호 단체들을 하나로 규합하였고 미주한인봉사단체 협의회(NAKASEC), 한미연합회(KAC), DC 입양연결회(DC-ALDC)를 포함한 전국단체와 로비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목적: 1940 년대 이후로 약 35 만 4 천여명의 어린이들이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러나 1983 년 이전에 출생한 입양자녀들의 시민권 취득은 입양부모들의 부담으로 주어졌습니다. 입양부모들의 시민권 취득과 관련된 인식 부재와 경시, 복잡한 서류 절차, 재정부담 등으로 인하여 1 만 8 천여명의 한국 출신을 포함한 3 만 5 천여명의 입양인들이 시민권 취득을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 이들 입양인들은 학비용자, 합법적 취업, 주택 용자대출등 각종 공공혜택 수혜를 받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선거 투표권도 없으며, 언제든지 미국에서 강제 추방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받지못한 입양인들이 출생국으로 강제 추방될 경우 언어, 문화가 생소하여 적응하기 힘들며, 합법적 취업도 할 수 없습니다.

기간: 엽서 발송기간은 2016 년 9 월부터 11 월까지 입니다.

목표: 매달 3 천 5 백매의 엽서를 상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 발신자 해당 하원의원, 의회 입양간부회의에 보내고자 합니다.

현재 미국 시민권을 받지 못한 입양인들을 지원합시다!

1. 엽서에 개인이나 소속된 단체의 이름으로 서명하여 발송합시다.
2. 이웃친지, 직장동료, 학우, 교우 등에게 엽서캠페인 동참을 부탁합시다.
3. 지역구 상원의원, 하원의원 사무실에 전화나 편지로 (Adoptee Citizen Act) 지지를 촉구합시다.
4. 재정지원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 합시다. bit.ly/donateACA (메모란에 *입양인 시민권*기입하세요)

전자엽서로 보내시려면 링크: bit.ly/Postcard4ACA. 주변에 진행되는 행사문의 또는 추가 정보요청은 adopteedefense@gmail.com 로 하여 주시고 웹사이트 www.adopteerightscampaign.org

###

페이스북 링크는 ([link](#))이며 Twitter 는 ([@AdopteeRC](#))